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 상품 유형 늘린다

농식품부,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 ·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에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입법예고(2월21일~4월2일))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상

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아림 기자



“지진 이재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북농협, 튀르키예 · 시리아 대지진 피해 극복 위한 물품 지원

전북농협, 튀르키예 · 시리아 대지진 피해 극복 위한 구호물품 지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진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 시리아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마련하고 있다. 행사는 김영일 본부장을 비롯해 장경인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병철 노조위원장, 이숙 농협생명보험 총국장, 김현기 농협손해보험 총국장을 비롯한 전북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 아픔을 공감했다. 전북농협은 본부 1층 로비에 구

호물품 접수창구를 설치해, 임직원들로부터 겨울의류, 방한용품, 마스크 등 이재민에게 꼭 필요한 용품들을 기부 받고 있으며 '구호물품 접수창구'는 이달 말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물품 지원에 동참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참여에 감사함을 전하며, 갑작스런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2차,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구호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분석법 개발

국립종자원, 세계 최초 LMO 분석법 개발 · 특허출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최첨단 유전체 분석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초고속으로 정밀진단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농업 · 식품 · 환경 ·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약 30작물 503품목

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국내외적으로 승인되어 작물의 생산량 증가 · 식량난 해결 ·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종자용 유체 및 면화는 자연경관용 · 축제지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계속해서 발견되는 등 LMO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재배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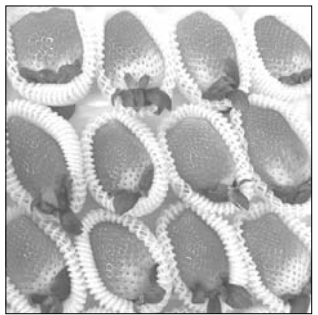
발한 것이다. 종자원에서 개발한 유체 및 면화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진단법은 재배지에서 초고속으로 정밀진단(PCR) 분석이 가능한 세계 최초 기술이다. 실험실 기반의 분석법에 비해 정확도는 동일하나 시간(23시간 → 50분)과 비용(6만원 → 1만원)을 크게 감축했으며, 민간에게 기술이전이 용이한 장점과 모바일 이용해 현장에서 실시간 결과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번에 개발한 초고속 현장 정밀진

단분석법은 향후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작물에 대한 분석법 개발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종자원의 유병천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기법 개발을 추진하고, 신속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정을 통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알타킹’ 딸기, 해외 시장서 ‘인기몰이’

고당도 · 복숭아향 매력... 전년 대비 수출액 1.9배 증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에서 육성된 고품질 딸기 ‘알타킹’이 태국 수입상(바이어)과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해외 유망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태국 수출함에 오른 ‘알타킹’은 경북 김천시 감로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한 품종으로, 2017년 품종출원을 했다. 2022년 수출량은 3만 9,733kg으로, 2021년(2만 543kg)보다 늘었다. 수출액도 2021년 대비 1.9배 증가한 6억8000여만 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태국과 싱가포르에 1.9톤가량을 처음 수출한 데 이어 해마다 수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알타킹’ 재배면적은 2022년 2.2헥타르(ha)로 조사돼 전년 대비 1.7배 넓어졌다. ‘알타킹’은 착색 비율이 50% 정도일 때 수확해도 당도(11~12브릭스)가 높고 저장성이 좋아 수출용으로 최적화된 품종이다.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복숭아향이 나고 과일이 크고 단단하면서 저장성도 우수해 수출



경쟁력이 뛰어나다. 농촌진흥청은 ‘알타킹’ 육묘 기간에 탄저병, 시들음병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육묘 및 병충해, 시설 환경관리 등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품질 규격에 맞고 현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최고급(프리미엄) 딸기 수출 전문단지를 규모화할 계획이다. /김아람 기자



“사회적 기업 역량 강화 등에 힘쓸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바다의 향기’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21일 제주에서 바다의 향기를 위탁 운영하는 (사)부신정회 유정호 대표이사과 ‘바다의 향기’ 조상완 시설장을 만나 농수산물분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사회적기업 중 식품제조업체들이 특히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의 향기는 2011년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기업으로 조미김을 생산 · 판매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취득과 저염도 및 국산 참기름 사용 등 엄격한 품질관리 경영전략으로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임종은 기자

올해도 양 · 질적 성장 통해 우수조합으로 키워나간다

전북전주수퍼조합, 제34차 정기총회 개최 지난해 사업 실적 · 올해 사업계획 발표

전북전주수퍼퍼마켓동조합(이사장 정양선, 이하 전주수퍼조합)이 제34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전북전주수퍼조합은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테이트호텔 본관 3층 아이리스홀에서 김종훈 경제부차장과 심규문 경제산업국장 등 내 · 외빈과 7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전주수퍼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총매출 388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개장에 15년 연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조합은 현재까지 투명한 물류 서비스와 조합원에게 주기적 할인행사, 조합을 이용하는 정조합원에게 물류 무료배송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협동조

합의 원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에는 목표한 매출액보다도 많은 매출을 올렸다. 정양선 이사장이 조합원들의 니즈를 수시로 파악해 제철과일과 인기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기적인 할인행사를 기획한 결과”라면서 “이와 같은 성과는 이사장이 조합원 조합 직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수시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양선 이사장은 “2023년에도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우수조합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풀뿌리 정신을 실현하고, 조합원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물류를 책임지는 든든한 조합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